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새고려신문</h1>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9년 5월 31일(금) ..(음력 4월 27일).. Пятница 31 мая 2019г. № 21(11683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한민족지 창간 조선로동자

신문은 1974년 5월 29일에 로렌드 최고 소비트 상임 위원회 결의에 의해 창간되었습니다.  
29 мая 1974 г.

Газета издается с 1949 г.  
1949년부터 1989년 9월 28일 토요일에 발행되었습니다.  
1989-1990년 XX차주최 국제펜제야 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주당위원회 전원회의  
내용, 방식, 형태를 서로 바꾸며 사업의 실고에 대해 말하였다고 보고에 관하여 알스크-사할린쓰끼시 제1비서 아.로기도 도전하고 바하티

70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11월 30일(금)  
10월 23일..  
Пятница  
30 ноября 2018 г.  
№ 46(11681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단신

**트루트네브 부총리, 사할린방문**

6월 30일 사할린을 방문한 러시아대통령 극동연방구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 러시아정부 부총리가 주정부에서 사회경제 주제로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권한 대행이 섬지역 보건 분야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회의에서 주민들의 빈곤 수준을 낮추는 데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주에서 이와 관련하여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 연초에는 사할린주에 저소득층으로 판명된 연금자, 수급자, 다자녀가족, 실업자 등 총 4만70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보조금 등 다양한 해결책이 준비되었다.

러시아대통령극동연방구전권대표는 주정부가 다양한 대규모 5년간 사회경제 개발계획 작성에 대해 칭찬했다. 이 기획의 시행으로 모든 분야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새고려신문 창간 기념행사 6월 7일  
미술박물관에서 개최**

6월 7일(금) 17시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전시회가 개막된다. 새고려신문이 소장한 물품과 사진 등이 전시되고 한민족지 역사에 대한 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2부로 창간 기념으로 작은 공연과 문예콩쿠르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 친애하는 여러분!

창간 70주년을 맞이한 새고려신문사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굳건한 헛수는 신문의 높은 전문성, 잠재력과 그 유용성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문사는 한국어를 비롯해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 보급하며 사할린주와 대한민국의 협력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한인 동포 여러분에게 역사적 고국과 유대감을 갖게 하고 사할린지역의 모든 주요 사건, 소식들을 알려줍니다. 앞으로도 만사에 창의적인 성취와 행운을 기원합니다.



**사할린주지사 대행 알레리 리마렌코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ю коллектив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с юбилеем – 70-летием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печатного издания!  
Эта солидная дата говорит о большом потенциале газеты, ее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и у читателей, высоким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е сотрудников.  
Вы уделяет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охранению 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и традиций, развит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се это позволяет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чувствовать связь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и быть в курсе всех значимых событи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Желаю вам дальнейших творческих успехов и удачи в делах!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항상 독자에 대해 고마움을 갖고

세월이 참 빠르다. 1998-1999년에 새고려신문은 폐쇄 위기가 닥쳐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 크게 의문이었다. 그후로 20여 년이 지났다. 한 걸음 한걸음씩 나가다 보니 어느덧 70주년을 맞게 되었다. 인쇄요금에 대한 빛이 너무 많이 쌓여서 65주년도 그렇고, 70주년도 조용히 하려고 했지만 5년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기념행사를 갖게 되었다. 우리 신문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민족지에 대한 독자들의 애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한국에 영주귀국한 우리 기자 식구들, 통신원, 애독자 등이 축하문들을 보내주고 덕담도 해주셨다.

사할린에 계신 독자들도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얼마 전에는 사무실에 전채련 (1931년생) 어르신이 찾아와 문예콩쿠르에 투고한 글과 함께 신문 유지에 써달라고 일금 봉투를 내미셨다. 진심으로 신문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에 힘 빠진 무릎에 기운이 솟는다. 항상 마음 속에는 죄송한 마음과 함께 고마움이 있다. 그리고 이런 독자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뛰어보고자 한다.

우리의 소중한 독자 여러분! 늘 관심을 갖고 신문을 보시고 지켜주시는 데 대해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후원하는 여러 기관과 민간단체, 개개인 모두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70주년 기념일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장 배 워토리아**

---


먼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어려운 여건과 현실 속에서도 동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동포 사회의 발전과 소통의 장을 열어주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뜻깊은 해에 신문사의 배순신 사장님 비롯 전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있을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더욱 더 빛나는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다시 한 번 <새고려신문>의 창간 70주년 축하드립니다.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일동**

**새고려신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텍스는 53740입니다.

## 2019년 하반기 신문주문 시작



(본사 편집부)

### 새고려 신문사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이 70세 넘어 사는 일은 옛부터 드문 일이다"라고 중국의 시인 두보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이나 단체의 수명은 사람보다 짧아 평균적으로 20년을 넘기기 힘들데 새고려신문사가 70년이란 세월을 굳건히 견디고 발전해 오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70년여 년 동안에는 한국어의 사용이 어렵거나 한국과의 교류도 되지 않던 참으로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새고려신문사 임원진과 직원분들의 사할린에서 한민족의 긍지와 자존심 그리고 동포애를 고취하겠다는 남다른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까지 당당히 한민족 동포언론사로서의 존재의 의의를 밝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과 투자를 중점내용으로 신북방정책을 2017년에 수립하였는데 신북방정책의 중점 대상지역은 말할 바도 없이 러시아 극동지역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해 두 나라를 잘 아는 사할린 한인 동포들의 활약이 기대되며 특히 새고려신문사가 동포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나아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새고려신문사의 영원한 발전과 직원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주유즈노사할린출장소 소장  
박기동 드림**

# 2019년 6월 1일 - 신문 창간 70주년

## 가장 재미있는 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의 역사는 사할린 동포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70주년은 대단히 크고, 중요하게 기려야 할 햇수입니다. 신문 발행이 이뤄진 날의 역사와 창의적인 오랜 시간은 칭송을 받을 만합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새고려신문>은 한민족의 우수 언론으로서 구시대와 신시대의 굴곡진 역사 속에 탄생한 신문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문사의 역사는 우리 사할린 한인의 생생한 역사이며, 그 속에 수많은 사할린 한인들의 주목할 일대기가 있고, 역사적 사건의 배경 속에 그들의 삶의 연대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굴곡의 순간들을 통과하며 살아남는다는 것이 다른 발행물들도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고려신문>은 항상 서민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정신적 가치 보존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신문을 위해 훌륭한 기자들이 활동을 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새고려신문>의 기념일은 신문사 원로들을 위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 덕에 신문은 어려운 시절을 넘기며 살아남았고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분들의 노력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수십년간 신문사에서 근무했고 은퇴한 후에도 손을 놓지 않고 사할린의 경계 넘어서도 자신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새고려신문>사의 직원들은 한민족 언론의 우수한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문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에게 강건함과 행복, 번영과 성취, 시도하는 모든 일에 성공과 강인함 그리고 고마움을 아는 독자들과 기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적이면서도 시대적 추세에 발을 맞추며 가장 재미있는 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할린한인협회  
사할린주노인회  
사할린주한인이산가족협회

안녕하십니까?  
세계한인언론  
인협회 회장 전용  
창입니다.



먼저 사할린 지역의 유일한 한국어 신문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리

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어 보급 및 한국문화 전파 등을 위해 애써오신 배순신 사장님을 비롯한 신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고려신문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발간되는 고려일보와 함께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한글 매체 중 가장 오래된 신문입니다.

새고려신문은 시대적으로 일제의 지배와 소련의 소비에트 체제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사할린 한인 사회에서 한국어를 보급하고 한민족 문화를 보존하는 주요 수단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1960년대 사할린의 한인 학교들이 폐교되었지만, 한인들은 이 신문을 통해 각 지역의 한인 소식이나 문예 작품들을 한글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사할린 지역뿐만 아니라 극동이나 모스크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독자를 확보하면서 사할린과 다른 지역의 한인 사회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도 해 왔습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는 한국 소식을 본격적으로 전했고 1990년대에 들어서 이산가족 찾기, 한국어 강좌 등 한국문화를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또 사할린 지역이 한반도 남쪽이 고향인 한인들과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특수성 속에서 남과 북의 화해 협력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압니다.

70년이란 긴 세월, 격동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유일한 한글 뉴스 매체라는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새고려신문의 노력에 대해 전 세계 한글 미디어의 대표단체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이름으로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창간 70주년을 계기로 새고려신문이 앞으로 70년 한국어 보급과 한국 문화 보존 및 전파,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 등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 마음에 새겨둔 기억

저는 약 50년 동안 출퇴근의 생활을 했는데 그중 약 40여 년 동안 사할린주 <레닌의 길로>, <새고려신문>사에 근무했다. 그 기간에 더듬어 볼 기억이 적지 않다.

1974년 10월 8일 신문사에 출근하던 첫 날을 나는 잊지 못한다. 시어머님께서 "신문사에는 조선사람들만 일을 하는데, 말 조심하고, 그저 '예, 예'하고 시키는 일만 잘 하거라"라고 신신당부했다.

본사 문화부 기자로서 약 10년간 훌륭하게 활동하던 유즈노사할린스크사범학교 조선과 동창생인 고 김선숙의 소개로 저는 <레닌의 길로>신문사에 입사했다. "너는 이겨낼 수 있어"라고 격려해주던 김선숙 씨의 예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한국어·러시아어에 능통했던 김선숙 동창은 사할린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수로 근무하다가 48세를 일기로 아쉽게도 세상을 떠났다. 벌써 2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나는 여전히 그 동창을 잊지 않고 있다.

1974년에 비서로 입사했으나 본사 지도부는 나에게 여러가지 일을 시켰다. 본사에 입사되는 많은 독자들의 편지를 주필의 지시대로 부서들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러시아어로 된 원문을 번역하라고도 하고, 지방 문화회관·노동집단·학교 등에 출장나가 취재하라고도 했다. 지도부의 지시대로 나는 농업부의 교정부·상상부·문화부·서한부·공업부·편집부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때문에 1994년 2월 - 2006년 2월간 본사 주필겸 사장직에 있을 때 위 부서들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이 신문을 편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1999년 6월 1일 신문창간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던 일이 기억난다. 50주년을 본사 건물 앞에 위치한 사할린국립대학교 식당에서 기념했다. 신문사 전 사원들, 사할린주 정부·주두마 및 기타 공식기관 지도자들, 사할린주 TV·라디오·신문사 기자들로 행사장이 만원을 이루었다.

그분들 다수가 우리를 축하해주고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해주었다. 우리 사원들은 사할린주 정부 고 이.파르후트지노브지사와 주두마의장의 표창장·감사장·상금을 포상으로 받았다.

이듬해 우리 신문사는 수년째 자리 잡고 있었던 콤포트스펙트 28번지(현재 사할린주 중재재판소가 위치했음)에서 <돔 오피체로브>장교관 3층으로 갑자기 옮겨야 했다. 이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책상·걸상·컴퓨터·책, 1960년부터 발간된 신문수첩 등을 자동차에 싣고 가서 승강기(리프트)도 없는 3층까지 올라가야 했다. 당시 나는 일본으로 출장을 나가 있었다. 사원들이 출장나가 있는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도 하지 않았다. 사장이 없어도 이사일을 다 옮겨놓고 모든 걸 잘 정리해 놓았다. 나는 너무 고마웠다. 사원들이 무슨 일이든 알아서 처리하곤 했다.

<돔 오피체로브>장교관에 위치한 건 좋은데 날이 갈수록 임대비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원들과 타협한 결과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또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그 건물에는 신문사의 인쇄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기계가 너무 자주 고장이 나서 신문을 주 인쇄소에서 발간하기로 하고 우리 인쇄소를 신문사로 쓰기로 했다. 그것도 인쇄소를 신문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밟아야 할 절차가 너무 많았다. 그러나 스폰서들의 지원으로 인쇄소를 신문사 건물로 다시 설계하고 수리한 후 2005년 가을에 또 이사했다. 우리 사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나는 언제나 그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런데 사장으로서 사원들에게 좋은 봉급을 지불하지 못한 사실이 아직도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안춘대 새고려신문사 전 사장  
러시아연방 문화공훈자

## 이모저모

### 사할린주민들에게 여름철 철도 통행에 대해 알림

유즈노사할린스크 철도역 측은 <여객 시간> 활동을 연 가운데 철도 역무원과 <사할린>여객회사와 교통경찰 직원들이 3시간에 걸쳐 사할린 주민들의 질의에 답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철로 부품교체 및 수리 기간에 열차 운행 시간표에 관심을 가졌다.

<사할린>여객회사는 6월1일부터 27일까지의 운송이 혼합될 거라는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승객들은 철도로 노글리키역에서 포로나이스크까지 이용하고 포로나이스크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까지는 버스로 환승하여 도달하게 된다. 승차권은 철도역 매표소와 러시아철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철도 승객 운송은 중지된다. 이는 철로 수리작업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전역과 노글리키까지 진행되는 관계로 내려진 조치다.

유즈노사할린스크 - 포로나이스크, 포로나이스크 - 노글리키 구간의 승객 운송은 버스회사가 정기노선을 운행하고 항공편 정기노선도 운행된다.

7월 17일부터는 노글리키에서부터 브즈모리에까지 철도 운행이 복원되고 브즈모리에에서는 버스로 환승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까지 도달하게 된다. 버스 운행시간표가 작성되어 바로 연결되도록 했다.

시간표는 <사할린>여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고 전화 71-29-94, 8-914-087-74-89로 문의 바람.

### Сахалинцам рассказали о работе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летом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м вокзал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ась акция "Час пассажира". Сотрудники вокзала, пассажирской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и транспортной полиции в течение трех часов отвечали на вопросы жителей. Больше всего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интересуется расписание поездов во время перешивки колеи, которая начнется 1 июня.

Пассажирская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еще раз напоминает, что с 1 по 27 июня движение будет смешанным. От станции Ноглик пассажиры будут доставляться поездом до Поронайска, а далее — автобусами д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илеты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в билетных кассах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вокзала и на портале РЖД. С 27 июня по 17 июля движение пассажирских поездов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не будет.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на всем участке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Ноглик. Поэтому доставка пассажиров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уществующими регуляр-

ными маршрутам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Поронайска, Поронайска — Ноглики, а также авиасообщением. С 17 июля возобновится движение от Ноглик до Возморья. От Возморь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людьми будут доставляться автобусом.

Расписание уже составлено и будет подвезено под движение автобусов. С ним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пассажирской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а также по телефону: 71-29-94, 8-914-087-74-89

### 체호브 책 박물관이 '아동보호의 날' 기념 프로그램 준비

6월 1일 11시 <사할린 섬>책 박물관이 어린 방문객들을 초대하여 우주비행사의 길을 진행하고, 종이 접기 기법을 알려준다.

아동들은 박물관에서 우주비행사 여권을 받아 우주정거장까지 여행을 떠난다.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외계인 가면과 우주의 기호들을 만들며 '<툭 와 호>'놀이를 하고, 상호작용 문제 풀이를 진행한다. 각 정거장에서는 참가자들의 우주비행사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고 모든 역을 통과한 참가자들에게는 박물관 측으로부터 기념품을 선물로 나눠준다.

<여름의 숲속> 수업에서 아동들은 종이접기 기법으로 꽃과 나비 접기를 배우고 종이로 만든 꽃과 나비로 공간을 장식하는 시간도 갖는다.

(8면에 계속)

# 2019년 6월 1일 - 신문 창간 70주년

##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축하문

사할린주 한민족지 70주년을 맞이하는 본사 사원 분들과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사 사원들은 전 러시아에서 한글로 발간되는 유일한 한민족지를 유지하는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계십니다.

한민족지는 70년 동안 사할린주 경제 발전과 한민족의 전통문화 계승과 한인사회의 발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사할린주 간 문화교류와 경제협력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할린주에서 조선학교들이 폐교되었던 1960년대에도 우리 신문은 계속 발간되었으며 한글의 불모지였던 구소련시기에도 한국어와 한민족의 얼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새고려신문은 사할린주 한인사회계에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새고려신문을 만드시느라 수고하시는 사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고달프시겠지만 한민족지를 계속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 워토리아 사장을 비롯해 사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새고려신문사 전 사장 안춘대

### 독자의 편지

## <새고려신문>은 영원한 나의 벗이며 선생이며 동행자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디오나 신문은 적게 듣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신문은 그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고 면수도 많지만 사람들은 그리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자주 훌쩍 보고 지나가고 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 신문만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은 다름 아닌 70년간 계속 애독하고 있는 사랑하는 신문 <새고려신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 1949년 7월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진행되는 조선어 교원강습이 있었는데, 그 강습에 토마리 조선학교 교원들도 참석했었는데, 우리 아버지 허조 선생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가 강의실로 들어간 다음, 숙소에 남아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아버지가 쓰시는 세면도구 외에 책 몇 권과 신문 두 장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글로 된 신문이었습니다. 나는 호기심으로 신문을 손에 들고 첫 면 위를 봤습니다. 맨 위에 <조선 로동자>라고 쓰여있었습니다. 그 신문이 창간호와 2호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지금도 사할린에는 우리말로 출판된 신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우리말로 된 신문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 로동자>지는 내가 읽어온 신문이고, 현재까지 읽고 있는 나의 신문입니다. 그때 시기에는 교과서외에는 우리말로 된 다른 서적이나 책자가 없었고, 그래서 매일 <조선 로동자>신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주귀국해서 <조선 로동자> 현재 <새고려신문>을 받아보지 못하지만, 인터넷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을 보는 것과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름에 사할린에 가게 되면, 바로 사할린 한국 문화센터에 가서 <새고려신문> 밀린 것을 모두 차례로 보게 되면 쌓였던 궁금증이 풀립니다.

오늘은 신문과 함께 이룬 꿈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1950년에는 토마리 7년제학교에 문학교원으로 촌소 립원(촌소-립원 선생님의 호)선생이 오셨습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시와 문학에 대한 사랑, 사할린에서 하나뿐인 조선말로 된 <조선 로동자>신문을 읽도록 지도하셨습니다. 수업시간에는 짧은 글짓기를 하며, <조선 로동자> 신문에 게재된 그의 시와 이야기를 자주 외우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신문에 대한 사랑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어 교원으로 강공봉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조선어를 교육하시면서 조선의 옛이야기를 배우처럼 잘 하셔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연극을 본 듯 했습니다. 그때 나는 <춘향전>, <심청전>, <장화홍련>, <홍길동전>을 배웠습니다.

1952년에 토마리 7년제학교를 졸업하고, 포로 나이스크사범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사범학교에서는 <조선 로동자>지가 두 번째 교과서로 되었습니다.

사범학교 내에 문학동아리가 조직되었습니다. 지도자로 러어와 러시아문학 교사 김 예브게니야 라브렌찌예브나 선생님이셨고, 문학 지도자는 사범학교 시인 김한희 씨였습니다. 그때 동아리 회원들은 시, 수필, 기사를 계속 <조선 로동자> 신문에 실었으며, 학교 내에서 <미숙한 철필>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1956년에 사범학교 제1회 졸업생을 졸업시킨 후, 학교가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했을 때 잡지는 <조선 로동자> 신문에 넘겨졌습니다. 그 후 자주 그 잡지의 재료가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해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크라스노고르스크의 십년제 학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부 모회의에서 학생들의 부모들이 글을 몰라서 신문

을 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시 교육부에 알리어 문맹퇴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1년이 지나서 보니 모두가 <조선 로동자> 신문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맹퇴치 사업은 신문 보급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962년에 나는 마카로브중학교 수학교원으로 전근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부모들이 신문을 받아보도록 하고, 학생들도 신문을 보게하기 위해 과외시간에 신문읽기를 조직하였습니다. 또 문학동아리를 조직하였고, 상급반 학생들은 신문 기사를 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신문에 마카로브학생들의 기사들이 <조선 로동자> 신문에 종종 실렸었습니다.

1964년 5월에 조선학교가 폐교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학생 여러분은 조선어 수업을 계속 못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조선 로동자>신문은 꼭 계속 받아 봐야 해요. 우리글로 된 하나뿐인 신문이거든요. 그래야 조선말을 잊지않고 더 발전시킬수 있으며, 신문이 학생들의 선생이 될 것이예요."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였습니다.

60-80년대에는 통신원으로 사업했으며, 신문 보급사업에 적극 참가했고, 토마리시 <레닌의 길로>지 통신원 지부장으로 사업하면서 본 신문사 안춘대 기자 선생님의 지도와 협조를 받으면서 통신원들과 함께 신문에 면을 자주 조직하였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우리 통신원들을 위해 지역별 세미나를 자주 조직하였습니다. 우리 토마리시 통신원들은 홈스크시에서 진행되는 서남부 지역별 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신문이 없었다면, 그때 어디에서 조선말을 배울 수 있었을까?

1988년 9월부터 사할린 학교마다 조선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도 토마리 제1중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첫 몇 해 동안에는 교과서가 없어서 어려웠을 때에도 우리 신문에서 배우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우리 신문이 항상 벗이었으며 선생이었습니다. 나는 <새고려신문>을 나의 신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의 신문과 창간호 1호부터 인연을 맺어 70년을 함께하고 왔기 때문에 어느 다른 신문과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우리 신문이 창간 60년 회갑을 맞는 해 2009년 3월에 나는 영주귀국 하였습니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고려신문>에 대한 나의 관심 및 그리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은근히 걱정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우리 신문을 못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 처음 몇 달 동안은 <새고려신문>을 보지 못해서 답답하였습니다. 영주귀국 3개월 후에 다시 사할린에 왔을 때, 나는 바로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보지 못했던 <새고려신문>을 며칠 사이에 다보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사할린에서 3개월간 쉬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인터넷으로 <새고려신문>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고향과 함께 숨을 쉴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신문이 창간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민족지를 지켜나가는 <새고려신문> 배 워토리아 사장님을 비롯하여 사원 여러분의 건강과 앞으로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으며 가정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한국 김포시에서  
<조선 로동자>  
<레닌의 길로>  
<새고려신문>  
애독자 허남훈

### 독자의 편지

## 6월 1일은 나에게 더욱 뜻 깊은 날이다

1949년 6월 1일은 우리 신문 <새고려신문> 독자들에게 경사로운 날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더욱 뜻깊은 날이다. 나는 신문 창간 첫 호부터 받아서 애독하기 시작했으며 1953년, 15살 먹던 학창시절에 신문 통신원으로서 첫 걸음을 딛기 시작했다.

첫 호부터 신문과 인연을 맺으며 오랫동안 사귀는 정든 친구가 되었다. 신문은 나에게 가까운 벗이자 생활의 동반자이며 선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신문 덕택으로 70년을 타향에서 살면서 나는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모국어를 편창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에 <새고려신문>사의 주최로 진행된 제15호 무궁화 공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뚜렷이 확증하고 있다.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이후로 신문을 받아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직도 기사를 쓰고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1세 노인들의 생활의 이모저모를 반영한 수백 개 기사들을 두고하면서 어려운 고비와 온갖 난관이 많았던 삶의 길을 밝아온 불쌍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참한 운명에 대한 수백 개의 기사들이 기본 주제였었다.

나의 전 생애가 흘러간 탄부 부락 나이부찌(비코브)는 사할린 탄부들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운명을 가진 부락이다.

아다시피 1939년 강제동원의 해인데 바로 이해에 나이부찌부락이 생겨 한인 탄부들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페이지가 열린 것이다.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인력 동원이 필요했던 일제는 192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모든 인적, 물질적 자원을 자의적으로 동원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사람들이 나이부찌 탄광으로 강제로 연행되었으며 징용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수가 800여 명을 넘었다고 한다.

국가총동원령에 의하여 조선사람들은 양친, 형제, 자식들과 처들과 생이별하고 정든 고향땅을 등지고 강제로 끌려와 탄광에서 고된 노동을 하게 되었다.

1945년 소련군대가 가져온 해방으로 불쌍한 조선사람들은 부모, 처, 자식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모국으로 귀환할 희망을 가졌으나 정치가들의 불찰로 환향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

오직 30명 가량의 1세 노인들에게만 행운이 주어져 모국으로 귀환하였으나 대부분 노인들은 부모, 형제, 자식들, 처들의 생사도 모른 채 불쌍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부락 끝에 있는 공동묘지에 영원히 주무시고 계시다.

오늘 사원들의 치적과 기여를 치하하며 우리 민족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하고 본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취를 축원한다.

부산시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안해준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ВСТРЕЧАЯ ЮБИЛЕЙ ГАЗЕТЫ

Более 20 лет назад мы задавались вопросом: просуществует ли наша газета до своего 50-летия?

Благодаря нашим ВЕРНЫМ читателям и сотрудникам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мы встречаем 70-летний юбилей!

В самые трудные времена именно читатели вставали на помощь газете, организуя сбор средств в поддержку единственного печатного издания в Росси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ахалин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и бизнесмены также не оставались в стороне, поддерживая нашу газету морально и материально.

В век глобализации,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и интернета издавать газету на бумажном носителе дело очень непростое. Тем более, если газета издается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языке. За свои 70 лет газета прошла непростой путь, трижды сменив название: «Чосон нодон-дя» («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ий»), «Ленины гилло» («По ленинскому пут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никальность нашей газеты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она издаетс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лишь в 1995 году в газете появилась первая страничка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егодня материалы на русском занимают 3 страницы из 8 страниц половины формата «Правды».

Издавать газету еженедельно силами маленького друж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 задача довольно сложная. Языковые трудности, нехватка журналистов, финансов – самые 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знакомы мног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газетам, и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ется наш коллектив ежедневно. Но мы точно знаем, что нашу газету читают и ждут во многи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 Москве и Хабаровске, Ростове и Владивосток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ут нашу газету 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уда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уехало более 4000 пожил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Что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газета «Сэ корё синмун» сегодня? Это 8 страниц, рассказывающих о 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новости, интервью, репортажи и зарисовки о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Это материалы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это жизнь диаспоры и не только. Это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орейская кухня. Это – история. Это – наша с вами жизнь. Это о нас!

Помимо освещения различных аспектов жизн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сахалинцев и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редакция является инициатором 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й и акц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В копилке редакции – встречи с известными писателями, публицистами и историками из России, СНГ и Кореи.

Журналисты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е раз являлись лауреатами и дипломантами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им. А.П.Чехова на лучшую журналистскую работу года.

В честь 25-летия со дня выхода первого номера газета была награждена Почетной грамотой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РСФСР. Коллектив газеты поощрен Почетными грамотам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999),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2014). Газета являлась участни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Пресса-2007», «Пресса-2008». В 2007 г. газета была отмечена Знаком отличия «Золотой фонд прессы», именных дипломов Знака отличия удостоились пятер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ашей редакции.

В юбилейный год газеты выражаю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моим верным коллегам. Ли Е Сик, Окад Се Бок, Син Ден Дя работают в редакции более тридцати лет. Корректор Пак Хе Син не так давно работает в редакции, но как и все болеет всей душой за газету. Без их понимания 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и сохранить газету было бы нелегко. Неоценима 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а наших сотрудников на заслуженном отдыхе, по первому зову бросающихся на помощь редакции. Это Ан Чун Де (Наталья Максимова), Сык Хе Ген (Надежда Сергеевна), Ким Су Ман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Еще раз благодарю за поддержку вас, дорогие наши читатели!

Свой юбилей мы решили отметить в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выставкой «Сэ корё синмун – 70/ О НАС» и проведением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и награждение лауреатов конкурса состоится 7 июня в 17 часов. Ждем вас,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Вновь хочу выразить всем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СПАСИБО, что вы есть!» И хоть это очень непросто, попытаемся продолжить свой путь к 80-летию.

Гл.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иктория Идюновна Бя

## Вспоминая прошлое

### Корейский передвижной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4, 15, 16, 17, 18, 19)

Не трудно понять, насколько ответственными были эти гастролы для артистов с далекого острова, какой волнующей становилась каждая встреча со зрителями. Но эти гастролы были еще и очень полезными. Сахалинские артисты показали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услышали мн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ритиков, обменялись творческим опытом с коллегами. В поселке Уш-Тобе, где пребывал в тот период Казах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была сделана фотография на память о поездке, на которой запечатлены арт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й гастроллирующей труппы и их местные товарищи по искусству. В репертуар гастролей вошли лучшие спектакли сезона 1957/58 года: «Волки» Ю Ти Хо, Со Шан Иль, «Завтра будет нашим» К.Мюфке (перевод Че Тиль Чуна), «Лавка дворянина» Де Ен Чума – и музыкаль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Сохранилась программа гастролей с иллюстрациями и аннотациями к спектаклям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 страницах программы запечатлены лица всех актеров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и солистов эстрадного ансамбля. Среди них лауреат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ежи и студентов 1957 года Москве, исполнительница лирических и жанровых песен (меццо-сопрано) Пак Чун Хва, исполнители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и шуточных песен Ше Бон Ги, Ким Ен Хи (сопрано), единственный исполнитель мексиканских песен Ким Ен Чер (тенор), исполнительницы корейских песен и танцев Сон Ден Ним и Ким Чун Су.

С каждым годом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 все больше завоевывал сердца зрителей. Успешные гастролы по Средней Азии, города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морью, Хабаровскому краю вдохновляли артистов, давали коллективу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обственных силах и новые импульсы в работе. Зрели новые творческие планы режиссеров и актеров театра, но им не суждено было сбыться. Театр внезапно закрыли.

В решен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исполкома, принятому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23 июня 1959 года, указывалось, что «выезд за пределы области ч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отразился на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передвижного театра, которы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е выполняет полностью функции, возложенные на него при образовании. Корейски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ревращен фактически в эстрадно-концертную группу, обслуживающую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русское население, а имеющаяся при этом театре драматическая группа в составе 13 человек, в связи с сокращением количества сценических площадок и зрителей, работает с убытками. Кроме т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ая группа не всегда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бирать пьесы, отвечающие задачам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Всего же коллектив театра в 1958 году насчитывал 54 человека, а ежегодная финансовая дотация – около 800 тыс.рублей,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и ссылаясь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порядочности сети драматических театров области, сокращ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отации, дальнейшего улучшения работы филармонии», облисполком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с 1 июля 1959 года корейского передвижн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в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и танца, передав его в ведение областной филармонии.

Однако нам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что офици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тех лет не раскрывают подлинных причин закрытия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пустя четыре десятилетия мотивы этого решения просматриваются достаточно явственно.

Дело в том, что с середины 50-х годов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оводилась кампания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на родин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Ча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выехала в КНДР, но многие решили остаться. Ведь, как известно, после войны 1950-1953 годов Корея оказалась

разделенной на две части. И далеко не все корейцы, прежде всего выходцы из южных провинций, хотели оказаться в КНДР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где установился жесткий тоталитарный режим Ким Ир Сена. Возвратиться же на родину,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эти люди также не могли, поскольку СССР не поддерживал никаких отношений с этой страной.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их событий числен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хотя и сократилась, но не столь значительно. К началу 1957 года в области их проживало чуть более 30 тыс.человек, что несколько даже больше, чем в 1946 году.

Убыточ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тоже нельзя считать убедительным поводом для его закрытия, поскольку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отации находилось большинство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И дело было, конечно же, не в финансовых проблемах.

Под внешней завесой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сти и стремления содей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у партийно-совет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области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а затем все чаще, стали проявляться симптомы подозрительности, граничившие с враждебностью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Не миновала театр и коса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Так, например, летом 1948 года был арестован актер Цой Че Нан, обвиненный в «антисоветской пропаганде» (ст. 58-10 УК РСФСР). Такие меры, как известно, были лучшим средством для «воспитания» остальных членов коллектива.

Власти пристально наблюдали за процессами, происходившими внутр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и, как видно, далеко не все их устраивало. Не последнюю роль играло и то, что под влиянием внутривластных 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факторов в 50-е – начале 60-х годов сред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 стали образовываться различные «братства», «землячества», объединявшие исключительно лиц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Само по себе это явление было вполне нормальным и объяснимым, но в те годы оно вызывало у руководящих советских и партийных органов лишь недоверие и подозрительность, т.к. считалось, что эти группировки «культивировали национальную обособленность, ... оказывали отрица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остальную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Тенденция к самоизоляции ч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особенно молодежи, могла, по мнению советских властей, привести к усложнению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области.

По существу начался разгром театра, поскольку почти все драматические артисты были или уволены, или им пришлось перекалфицироваться. Дружный творческий коллектив фактически распался. Чтобы сгладить негативный эффект и недовольство, возникшие у значительной части корейцев, и прежде всего у ее интеллигенции, с 1 августа 1959 года в здании бывшего корейск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открылся корейский Дом культуры, где начали работать кружк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и. Но по сравнению с закрытием театра это решение, подававшееся как проявление заботы о развит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лишь еще больше оттеняло лицемерие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озабоченных воспитани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духе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ма». Впрочем, и корейский Дом культуры был позднее также закрыт.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артистов бывшего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то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они еще продолжали свою гастро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о уже как сол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филармонии. Их концерты еще помнят некоторые сахалинские старожилы.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И.Цупенкова(Костанова)  
(Из книги «Долгая дорога  
к большой сцене», 2001)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На этой неде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ступило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оказания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Северу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на этой неделе приступило к процедуре передач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гуманитар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8 млн долларов в фонд помощи Северу.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28 мая на встрече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ект будет рассмотрен в комитете по управлению фондами и Совете по поддержк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бменов. О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средства планируют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учитывая срочность вопроса. Кроме т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заявил, что с Севером ведутся переговоры о посещении Кэсонск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аботавшими там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ухопутная территория РК вновь увеличилас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ухопутная территория РК увеличилась на 14 кв. км, составив 100.378 кв. к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8 ма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увеличение связано с осушением прилегающих мор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реализуемым в основном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и промышленных целях. На этот раз это 8,4 кв. км в уезде Ёнам-гун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и 1,1 кв. км в городе Сихын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ред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единиц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площади занимает провинция Кёнсан-Пукто – 19%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Далее следуют Канвондо – 16,8%, Чолла-Намдо – 12,3%.

## Семьи американских солдат, погибших и пропавших без вести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посетят DMZ

29 мая члены семей американских солдат, погибших или пропавших без вести в годы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осетили высоту Хвасальмори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где ведутся поиски останков погибши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управлении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РК.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в этом месте захоронены останки 200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лдат и 300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ША, Франц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принимавших участие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раскопки проводит только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К без участия Севера, который пока не отреагировал на предложение начать совместные работы в рамках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К 1 мая было найдено 325 фрагментов останков, а также 23 тыс. различных предметов, в том числе бронезилеты, отличительные знаки французской армии и другие.

## РК поделится опытом в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5G со странами Азии

РК поделится со странам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опытом в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услуг пятого поколения 5G. 28-29 мая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оводит APAC 5G Leaders' CxO Summit. В его рамка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и восьми стран региона обсуждают стратегию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5G, а также бизнес-модели на базе контентов 5G и сопутствующих услуг.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затронут проблемы безопасности эпохи 5G, а также изменения экономики и общества в условиях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связи.

## Писательница Хан Ган отобрана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оекте «Библиотека будущего»

Произвед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Хан Ган отобрано для участия в общественном арт-проекте шотландской художницы Кэти Патерсон «Библиотека будущего». Он стартовал в 2014 году и рассчитан на 100 лет. Каждый год в течение века один из крупных современных писателей передаёт проекту свой новый роман. Все произведения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2114 году. Они хранятся в публи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Осло. Вокруг высажены тысячи сосен, которые по завершении проекта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ны для создания бумаги для печати этих романов. В библиотеке представлен список фонда произведений, которые недоступны для чтения. Хан Ган стала пятым автором, выбранным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оекте, и перв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Аз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абота Хан Ган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публике через 95 лет. В «Лесу библиотеки будущего»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ередачи оригинала работы писательницы, которая написан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обернута в белую ткань. Роман называется «Любимому сыну».

## Президент РК поблагодарил создателей фильма «Паразиты»

«Золотая пальмовая ветвь» 72-го Кан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за фильм «Паразиты» - знаковый подарок южнокорейцам и киноиндустрии в год столетия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При этом стату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высился. Об этом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написал в воскресенье в своём Twitter и других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Он заявил, что вместе со всем народом, ценящим отечественное кино, испытывает радость, добавив, что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ё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смотреть фильм. Президент сказал, что знает, сколько усилий прилагают создатели фильмов, а «страсть» многих людей, вложенная в фильм «Паразиты», создала повод гордиться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инематографом.

(RKI)

## Участники публичных слушаний одобрили социальн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Мероприят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священное итогам исполнения глав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документ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2018 году, собрало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депутатского корпуса 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м предстояло дать оценку бюджетной и налоговой политике в регионе, от которой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благополучие людей.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 уровню расходов социаль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занимает третье место в стране после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уточнил временно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его мнению, главный финансовый документ региона можно также с полным правом назвать бюджетом развития: десятки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аправляются на перспективны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обеспечить ускоренный рост в экономике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Как сообщила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на Харченко, доход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ставили 137,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 превысили план на 2,3 процента. Если сравнивать с 2017 годом, налоговые и неналоговые поступления выросли на 6,8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основном за счет роста цен на углеводороды, увеличения добычи нефти по проекту «Сахалин-1».

Расходная часть бюджета - 144,9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47 процентов средств или 68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аправлены в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ую сферу. Рост против показателя 2017 года - 9,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Самая большая доля расходов - соц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23,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Например, этими средствами обеспечены более 220 мер поддержки инвалидов, семей с детьми, пенсионеров и други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нуждающихся в помощи общества. В 2018 году ими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250 тысяч человек - свыше половины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расходы на образование. На эти цели в прошедшем году ассигновано 21,8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Строились 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лись 25 объ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5 из них - на Курилах. В списке - средняя школа в Долинск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здание гимназии № 1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етский сад - школа в селе Малокурильском на острове Шикотан.

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область направила 14,6 миллиарда. Часть средств пошла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реконструкцию 11 объектов. Например,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зданий под амбулаторию в селе Яблочном и два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а - в Раздольном и Охотском.

На физкультуру и спорт из бюджета 2018 года выделено 5,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на культуру - 2,8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10,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направлено на содержание, а такж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реконструкцию областных и местных дорог.

Еще одно направление расходов -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е хозяйство. Общая сумма - 32,8 миллиарда. Это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уществующего жилья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переселение граждан из аварийных зданий, а такж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коммун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В 2018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рейтинге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ой компании PricewaterhouseCoopers,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консалтингом и аудитом, вновь оказалась в пятерке регионов - лидеров по показателям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олномочий в части налоговой политик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островные финансисты уделяют участию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ов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редств на проекты местного значения.

- Это инструмент,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людям участвовать в местном самоуправлении, активно решать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качеством жизни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 сказала Анна Харченко.

14500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го по масштабам проекта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На его реализацию отпущен один миллиард рублей. По итогам проведенных в 2018 году отборочных процедур определены 11 обществен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строиться в 2019-2020 годах. Это детский лагерь в Долинске, рекреационный парк в Невельске, Дом культуры в селе Дальнем, стадионы в Поронайске, Аниве, селе Восток.

Как показало обсуждение, участники публичных слушаний волнуют самые разные вопросы - от поддержки талантливых детей, сейсмоусилению жиль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ых школ до привлечения на острова медик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Как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ладимир Ющук, в 2018 году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ехали 144 врача. На эти цели использовано более 12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2019 году прибыли 64 специалиста. Осенью их количество должно достигнуть 200 человек.

Участники публичных слушаний рекомендовал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е принять закон об исполне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за 2018 год. Правительству - уделять первоочередное внимание безусловному исполнению социаль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а также продолжить работу по сохранению и развитию налогового потенциала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одводя итог мероприяти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се озвуче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будут изучены и использованы в дальнейшей работе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В 2019 году главный финансовый документ региона сохранит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на поддержку и развитие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роста экономики. Доходы бюджета - 167,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Это выше уровн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30,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область направит 21,8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жильем - 7,8 миллиарда, на дороги - 14,6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Прирост поступлений дае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в этом году направ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на самые важные цели - соц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реконструкцию жилья, объ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порта, культуры и ЖКХ,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 приоритете - качество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Богат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должн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лужить их интересам.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ится встреча с бизнесменами из РК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граждан приглаш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о встреч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их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в рамках бизнес-мисси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с 18 по 20 июня.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данной бизнес-миссии являются: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 Корпорация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орпорацие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меморандума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рпорацией, заключенного на площадке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2 сентября 2016 года.

19 июня состоится деловая часть программы бизнес-миссии: выступления с презентациями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 до обеда,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пройдут встречи в формате Б2Б.

Указа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будут проведены по адрес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2, д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 этаж, зал совещаний "Кунашир" №226.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дет формирование состава

бизнес-мисси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предоставлена информация о четырех участниках. По мере включения нов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будет обновлена.

В случа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и готовности участия во встреч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для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по указанному ниже адресу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информацию о вашем предприятии: ФИО участника, должность, номера телефонов, 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цель участия, название компани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указанной в таблице по ссылке), с которой готовы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Координац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осуществляет Яна Сенайевна Ким, ведущий советник отдела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епартамента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вязей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8 (4242) 670-835, y.s.kim@sakhalin.gov.ru),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ЖКХ.

##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н совет по развитию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Первое заседание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о развитию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волонтерства) и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стоялось сегодн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я Наумова.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говорили об итогах и перспективах развития волонтерского движения на островах, а также поделились планами по созданию ресурсных центров добровольства и реализации других важ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 Сегодня волонтеры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помогают искать пропавших людей, вносят вклад в сохранени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и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помогают в проведении ответствен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Глава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авит задачу – сохранить заложенную основу и продолжить работу по созданию условий для поддержки и развития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в регионе, - подчеркнул Сергей Наумов.

По данным исполняющ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Егора Умнова, в области проведена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поддержке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 Только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й форумной кампании «ОстроVa» обучение по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рошли свыше 3,7 тысячи волонте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и слёты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Молоды душой», культурных волонтеров «Твори культуру», а также добровольцев, работающих в сфере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области созданы корпуса волонтеров с единой униформой. Кроме того, более 100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зличного уровня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и повысили свою квалификацию в сфере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 рассказал Егор Умнов.

Развитию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в регионе способствовало проведение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 Skills Russia) и I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В проекта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2 тысяч волонтеров.

Также отмечено, что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разыграло гранты некоммерче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в том числе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ддержку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на сумму свыше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Рекламная кампания, посвященная Году добровольца (волонтера), запущенная в области, попала в 10-ку лучших среди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По словам куратора Года добровольца Алексея Ченских,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сразу двух всероссийских конкурсов - на открытие ресурсного центра по программе «Молоды душой», который планирует начать работу в конце июня, и на открытие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волонтеров к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В этом году на островах сформировано тр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центра по развитию серебряного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которые объединяют более 170 волонтеров. Сегодня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работы становится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В данной сфере уже функционируют три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же остров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разработали Единый региональный справочник волонтера, который даёт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реализации волонтерских программ на областном и муниципальном уровнях. Сегодня его берут за основу не только мест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но и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страны.

Сейчас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подготовило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Регион добрых дел», победа в котором позволит открыть региональный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центры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 На линию «1-300» поступило уже около 4 тысяч звонков

В неделю принимается до 500 обращений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 этом ни одно из них не остаётся без внимания. В подавляющем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проблемы решаются оперативно. Горячая ли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была запуще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руководства области.

- Мы тщательным образом анализируем вопросы, поступающие на линию от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Ежедневно проводим совещания с коллегами, отслеживаем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поступающие жалобы, принимаем меры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Новая система получения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от жителей уже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а себя как эффективный механизм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работы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одчеркну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Владимир Ющук.

Стабильно среди обращений лидируют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записи на приём к уз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Кардинальное решение этой проблемы требует определенного времени, так как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есть дефицит врачей по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власти области усилили пакет мер поддержки приезжающих врачей.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лечь более 150 медиков, выросли квоты и на обучение сахалинцев в медвузах.

Абоненты звонят на «1-300» не только по проблемным вопросам. Они интересуются нюансами льготного лекарстве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акцинации. Есть и обращ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организацией работы медучреждений.

- У меня в мае возникла такая ситуация. Вез родственника в одно лечебное учреждение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у него травма ноги, передвигается на костылях. На въезде в больницу долго не пропускали, говорили – не положено. В итоге пустили только после долгих разбирательств, едва не опоздали к назначенному времени. Позвонил на линию, высказал пожелание, сказали – разберутся.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таких проблем уже не возникло, - поделился ж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Евгений Антонов.

Напомним, горячая ли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заработала на Сахалине в начале апреля. В первые недели отработывались звонки, связанные с работой медучреждений,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зднее в эту работу включились все центральные районные больницы. Звонки принимаются по будням с 8 до 17 часов.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а первая в этом году больша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ая ярмарка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представили более сотни мест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з различны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Среди них – крупны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ие и личные подсобные хозяйства, садоводческие товарищества, организации пищевой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ыбной отрасли.

Бойкая торговля рассадой овощных культур, семенами картофеля лучших и традиционных сортов, удобрениями, садовым инвентарем, разнообразной мясной, молочной и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ей и многим другим шла 25 мая с 9 утра на площадке возле «Дома торговли»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От имени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с открытием ярмарки «Весна-2019» сахалинцев поздра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опулярность мероприятия с каждым годом растёт, и пожелал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хорошей торговли, а покупателям полезных и удачных покупок.

Ярмарочную площадку для удобства разделили по тематикам. В одном из секторов, к примеру, помогали дачникам и владельцам частных домов.

- Ассортимент и цены меня сегодня радуют. Я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посещаю ярмарку и весной, и осенью. Есть свой участок, настала жаркая пора, и то, что еще не успела приобрести, покупаю сегодня. Вот взяла рассадку томатов, продавец сказала: очень хороший сорт,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дежда Оверченко.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овалась и площадка «Общепит».

- Покупаю разносолы, готовую продукцию «Заречного». Я особенно люблю блинчики, а дети – сырники. Еще решил закупить побольше овощей, мяса. Погода хорошая стоит, на шашлыки собираемся, - рассказал посетитель ярмарки Анатолий Маслаков.

С каждым годом ассортимент товаров на ярмарочных прилавках неуклонно растёт. Это результат планомерной работы по развитию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отрасли в регионе.

-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 сто процентов обеспечен яйцом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картофелем, тепличными овощами. Аграрии увеличивают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лока и мяса. В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завозимая продукция уступает место островной. Ярмарки у нас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ы, поэтому такой формат торговли будет расширяться, чтобы отвечать интересам и продавцов, и покупателей, - отмет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ярмарке «Весна-2019» можно было не только сделать покупки, но также получить полезные советы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технологии возделывания культур, в том числе и мало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х. Еще одно новшество этого года – «Ярмарка вакансий». В отдельной палатке можно было получ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б имеющихся рабочих местах на ряде предприятий: АО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АО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АО «Совхоз Заречное» и других.

Кроме того, в рамках деловой программы состоялась закупочная сессия, где были заключены протоколы намерений на поставку нового урожая между сельхоз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оптовой и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а также между организациями пищевой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ритейлом на поставку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Так, договоры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яда торговых сетей заключили АО «Совхо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АО «Мерси Агро», АО «Совхоз Заречное» и СПК «Соколовский».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старались создать на ярмарке праздн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Торговля шла с музыкальным сопровождением –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егиона исполняли песни и частушки. Следующая большая областная сельхозярмарка состоится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2019 года.

##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сельхоз возглавил победитель конкурс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сполняющим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ведомства назначен Дмитрий Рева. В апреле он стал одним из 55 победителей кадрового проект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Петрович родился 30 января 1983 года в Ростове-на-Дону. В 2005 году с отличием окончил Рост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Продолжил образование в

аспирантуре Рост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маркетинг».

Управленческий стаж победителя кадрового конкурса составляет 13 лет. Так, он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ь управляющего мясного бизнес-направления в концерне «Покровский»,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в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и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6-2017 годах Дмитрий Рева возглавлял собственную компанию, где занимался оказанием консалтинговых услуг крупным корпорациям н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м рынке и дистрибуцией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До назнач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ботал директором по развитию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ерышевский» (Белогорск, 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 охватывающего вс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регионы.

Дмитрий Рева является экспертом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рын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втором книги, фильмов, статей по данной тематике в ведущих печатных и электронных изданиях.

- В новой должности 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осредоточусь на том, чтобы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и обеспечены основными продуктами питания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рассказал Дмитрий Рева. - При этом высокое качество продукции должно сочетаться с доступными ценами. Также я ставлю перед собой задачу добитьс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дукции островных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й на рынк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ее в новые должности по итогам кадрового конкурса вступили 6 молодых управленцев. К примеру, сахалинец Максим Жоголев сегодня исполняет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 Татьяна Сачук возглавила отдел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А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оизойдет еще несколько назначений в орган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Кроме возможности занять руководящие должности финалисты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и гранты: первая десятка лидеров выиграла по 1 миллиону рублей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еще двое участников на них смогут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ли туристические маршруты для детей

В летни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сезон выездные экскурсии посетят сотни островных школьников.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ормируется новая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Одно из ее направлений – детский туризм. Для ребят доступны более 50 маршрутов. Среди них – Янтарное побережье, скала Лягушка, «Живое наследие 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Карафуто», «Трофеи войны».

В целом,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ов в работе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лось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отрасли,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в районах должны появиться новые места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ритяжения. Это набережные и смотровые площадки, тропы и маршруты. Уже заключены соглашения с 12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образованиями. Оценить изменения сахалинцы и гости региона смогут уже в середине лета.

25 мая ребята из гимназии №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правились посмотреть на дв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 Быковские пороги и Янтарное побережье. Экскурсия началась уже в автобусе –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Сергей Первухин рассказал школьникам о том, чт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 планировке напоминает Чикаго, а также сообщил и другие интересные факты о Сахалине.

- Мы уже не в первый раз отправляемся по туристическим маршрутам с ребятами. Были на Грязевом вулкане, мысе Слепиковского, - поделилась класс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7 В класса гимназии №2 Надежда Арышева. - Это помогает не только получи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но и пообщаться с природой, а еще дети могут пообщаться в непринужд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Подобные экскурсии формируются по запросу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Они выбирают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и место по своему желанию.

Ежегодно из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деляется около 3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организацию детских экскурсий. Бесплатны они для детей из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семей, а также для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участвовало около 900 человек.

- Мы уже 11 лет занимаемся детским туризмом. Это очень популярно, поэтому каждый год стараемся придумать что-то новое, особенно по теме краеведения. Я думаю, что это необходимая часть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и должны осознать историю, а не просто посмотреть на картинке в Интернете, - подчеркну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туристической компании «Содружество» Александра Комарова.

Всего на развит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этом году выделено более 5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Большая часть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 направлена в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сравнения – в 2018-ом году эта сумма была почти в четыре раза меньше – 132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우리 시대의 '암호' 광주에 대한 참회록

(전호의 계속)

## 쓰레기통 속에서 발견한 '광주'

내가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맞은 것은 박사과정을 위해 플로리다로 학교를 옮긴 1년 후인 1989년 5월 말 어느날이었다. 페이퍼와 페이퍼, 시험과 시험에 지쳐 있다 학기가 끝나 여유로운 낮잠에 빠져 있었다. 가깝게 지내던 교회 후배가 찾아와 '00이 아빠가 공부 끝나고 급히 귀국하며 뒷처리를 부탁했다'며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졸지에 졸린 눈으로 그를 따라 나섰다.

그날 기혼자 유학생 빌리지 공동 쓰레기통에 동료 유학생이 남기고 간 옷가지와 변변치 않은 살림도구 등을 던져 넣다가 나는 일생일대의 '황재'를 하게 되었다. 30년이 넘도록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황재품은 다름 아닌 20여권의 소설과 비소설류 책들이었다.

그런데, 평소 말없이 먼 발치에서 목례를 하고 지나칠 정도의 친분 밖에 없던 귀국 유학생 친구가 놓고 간 책들 가운데 한 가운데가 짝 조개져 실밥이 나풀거리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뭘까' 펼쳐 본 책은 황석영이 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였다. 하마터면 쓰레기통에 휩 던져버릴 뻔 했던 그 책은 여름 내내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였다.

한 여름 이국땅 쓰레기 통에서 건져낸 광주의 실체는, 흥희담의 <깃발>에 이어 임철우의 <봄날>에 이르러는 더욱 촘촘하고 적나라하게 확인 되었고, 그때마다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이후로 보게된 몇편의 '광주 비디오'는 상상 속의 5.18에 색을 입히고 입체감을 더해 주었다.

5월에 5월을 거듭하며 광주의 진실이 역사의 앞바다에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분명 소름돋게 하는 충격이었다. 운동권 친구가 허풍으로 말하던 '광주'는 2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느낄 만큼, "6·25때도 그런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올 만큼, 어느 시인이 읊었던 '참새도 세상을 뜰 만큼' 그렇게 참혹스런 사실이었다. 이후로 매년 5월 어간에 '새로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 마다 일어난 분노에 치를 떠는 일이 반복되곤 했다.

## 불쾌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불편함으로

세월이 약이런가. 1980년대 말 이후로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민중화운동'이라는 훈장이 주모자 그룹의 정치권에 의해 수여되고, 6·29라는 고단수 묘약에 완전히 분노는 풀이 꺾이게 되었고, 88올림픽의 휘황한 광파르 속에서, 그리고 천민 자본주의의 질탕한 단내음 속에서 급기야 '불편함'으로 전이되기에 이르렀다.

만은, 지금도 광주는 여전히 불편한 존재일 터이다. 그러나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욱 불편하게 다가오는 광주. 역사를 운행하는 조물주는 생략하거나 건너뛰기도 허용치 않고 꼬박꼬박 우리의 월력 속에 5·18을 챙겨놓고 있으니 어쩔 것인가. 잊었는가 하면 다시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불쾌와 분노의 언저리를 맴돌게 하다 다시 불편하게 하는 광주.

뒤늦게 '역사'에 철이들어 알게된 사실은, 1980년 5월 18일을 관통해온 세대는 어떤 형태로든 광주 체험으로 인한 그 어떤 신드롬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5월이 되면 세상에 대한 것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분노가 밀려 들었고, 이에 더하여 갖가지 감정이 뒤섞이고 엉켜져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뒤시끄러운 감정이 되기 일쑤였다.

뒤시끄러운 감정을 안은 채 광주를 너무 보고 싶었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죄책 때문에 보고 싶었고, 사죄하는 공범자의 마음으로 보고 싶었고, 세월의 날 속에 무더질 것만 같은 양심을 곧추 세우기 위해서도 보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는, 20세기 분단 조국에 태어난 '나'라는 인간의 실존의 근거를 제공해 주고, 역사 의식의 청명파나 상태를 벗어나게 해 주었고, 운명 공동체적 '구원을 산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고마움 때문에 광주를 보고 싶었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직·간접으로 경험한 한국인들에게 '광주'는 더 이상 지명이 아니다. 광주는 한국인들의 무더진 양심에 날을 세우게한 암호다. 더하여, 진정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 우리시대의 암호다.

다시 고백컨데 1980년 5월 18일 이후 광주의 진실이 하나 둘씩 벗겨지며, 오히려 광주가 나를 구원하

기에 이른 것은 천만 다행이었다. '광주'는 나쁜 아니라, 털끝만큼이라도 양심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세계에 이르게한 암호이며, 토마스 쿤이 말하던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일으킨 일대 촉발제였다.

## 다시, 망월동에서

김포 공항을 떠난지 24년이 흐른 2012년 고국 땅의 2월은 매섭게 추웠고, 망월동에는 찬 바람만 췌췌 불고 있었다. 셋길로 빠졌다는 미안한 생각에 장모님께 먼저 소재를 알렸다가 괜한 오해를 샀다.

"어메 김 서방, 뭘 일로 망월동에 가 있능가? 어무이(어머니) 상 치르고 화장했다더니 망월동에 모셨는 겁네?"

호스피스 병동에 1년 반 동안을 누워 계시던 어머니는 내가 서울에 도착한 다음날, 실눈으로 잠깐 올려다 본 후 1시간 만에 돌아가셨고, 상을 치르자마자 KTX를 타고 망월동에 먼저 들렀던 터였다. 망월동에 먼저 간 사위를 어리둥절해 하시는 장모님께 얼버무리듯 말하고는 묘역을 빠짐없이 둘러 보며 늦게 철든 남자는 꺼억꺼억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7년이 흘렀고, 이번에는 해외언론인 단체의 일원으로 묘지석 앞에 다시 섰다. 5.18 당시 사망한 영령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영령들, 민주화 운동 공로 영령들의 이름을 마음으로 조용 조용 부르다 보니 다시금 죄책감이 밀바닥에서부터 밀려와 울컥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 이들 중에는 생전에 만났던 이름들도 있고, 낯익은 이름들도 있다.

저수지에서 친구들과 떡갈다 계엄군의 사격에 죽은 방광범(사망 당시 13세), 5·18 및 민주화 투쟁을 주도하다 체포돼 옥중단식으로 사망한 박관현, 도청항쟁 지도부 정상용, 광주항쟁 유혈진압을 항의하며 투신한 김의기, 이성으로 우상을 타파하는데 일생을 바쳤던 리영희 교수, 거대한 민주화의 흐름에 의기 나로 몸을 실은 무명의 열사들.

리영희 교수님의 묘비석 앞에 잠시 서서 물끄러미 얼굴을 바라다 보았다. 파안대소 하는 모습에 밀바닥으로부터 몽클하는 어떤 것이 다시 목올대로 올라왔다. 늘 실증적인 글쓰기를 강조하셨던 교수님의 찌렁 찌렁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나의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에서 그친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눠져야 할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그것은 우상에도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이다."



▲ 시대의 은사 · 리영희 교수의 묘비석 앞에서 한참동안 안웃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김명곤

두 번째 5.18 묘역을 방문하고 정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더 무거워지고 깊은 한숨이 토해져 나왔다. 미완의 5.18'에 대한 역사적 무게가 다시금 어깨를 짓눌러 왔기 때문이었을 터이고, 광주가 가져다 준 구원을 완성해 낼 일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직 광주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학살의 원흉들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거리를 활보하며 호의호식하고 있다.

"역사의 우연은 과제를 안겨준다"고 했던가. 1980년 5월 어느날 우연히 만난 광주. 이제 '남은자'의 과제는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더불어 70여년 동안 한반도 땅에 온갖 갈등을 일으키며 삶의 정상성을 파괴해온 분단을 극복하여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이라 믿는다. 빨갱이를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된 광주학살은 독재와 분단상황이 가져온 비극이기 때문이다. (끝)

【한국(광주)=세언협공동취재단】

김명곤 기자

## [우리말로 깨닫다]

# 엄마, 어머니, 엄마

철이 든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읽다가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철이 드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을 때 철이 드는 것이라는 내용(정철, 한글자)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무릎을 쳤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가슴을 쳤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어린 시절이 지나가면 어른이 되는 것처럼 쉽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의 모습에서 자신을 조금씩 놓게 되는 시간이 오히려 어른이 되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교육이라든지 제도라든지 하는 것에 떠밀려온 느낌이 있지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것에는 이해와 고마움의 감정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말 그대로 철이 드는 것이죠. 주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도 한 몫을 할 겁니다. 조금 더 다정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몽클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르륵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힘이 없어진 아버지 앞에서는 아빠라는 단어는 더 아픈 말이 됩니다. 어쩌면 계속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에게는 이런 감정의 변화는 없을 듯합니다. 아빠라고만 불렀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아버지라고도 불러볼 것을 권합니다. 새로운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의 경우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아주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억 속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저에게는 쉽지도 않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는 엄하고 약간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서 제도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아버지들도 참 힘드셨을 겁니다. 자상한 아빠가 되고 싶어도 사회적 분위기가 엄한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를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빠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편 저의 경우에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였습니다. 대학생이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에 어머니라고 부르겠다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무언의 사회적 압력이 제 속에 들어와 있었나 봅니다. 성인이 되면 그에 맞는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 저는 실수로 엄마라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라고 불러 왔습니다. 그렇게 30여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철이 일찍 들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직도 엄마라고 부르는 친구들을 보면서 언제 철이 들 건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부르다 보니 웬지 거리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더 다정히 어머니를 대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갑자기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말아들이어서 그런지 부모님께 살갑게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손도 잡아드리고, 팔다리도 더 주물러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를 뵈었을 때, 엄마라고 불러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슬쩍 엄마라고 불러보았습니다. 호칭이 바뀐 것을 눈치 못 채신 것 같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동생들이 여전히 엄마라고 부르기 때문에 덜 어색하셨을 수 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엄마의 저런 다리를 주무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고 걷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더 가깝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모저모

## (2면의 계속)

모든 재료는 박물관 측이 제공하며 16세 미만의 학생들의 박물관 입장은 무료다.

###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подготовил программу ко Дню защиты детей

1 июня в 11:00 музей книги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приглашает юных посетителей пройти путь космонавта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скусством оригами.

Дети получают в музее паспорт космонавта и отправляются в путешествие по космическим станциям. Они изучают карту звёздного неба, сделают маски инопланетян и космические значки, поиграют в "Тюк-Вах" и выполнят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задания. На каждой станции участникам в паспорте космонавта ставится отметка, а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всех станций каждый получит на память сувенир от музея. На занятии "Летняя поляна" ребята научатся делать бабочек и цветы из бумаги в технике оригами, а затем составят из них композицию. Все материалы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Вход в музей для детей до 16 лет всегда бесплатный.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러시아 화가들의 동화 속 이야기들>

4월 6일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국립 루스키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구성된 <러시아 화가들의 동화 속 이야기> 전시회가 사할린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소개되었다.

이 전시회는 <사할린 에너지>회사와 러시아 루스키 박물관, 사할린 미술박물관의 공동기획으로 조성되었다. <사할린 에너지>회사의 25주년을 즈음하여 4월에 열린 전시기획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는 선물이었다. 박물관의 방문객들은 전시회에서 동화와 전시 작품들을 즐길 뿐만 아니라 이 기획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다양한 행사에 참가하

면서 동화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관람과 활동 교실, <동화를 그려 박물관에 가져오기>, 만화 그리기, 경연대회, 연극 및 공연, 루스키 국립박물관으로의 가상 여행, 도전게임 등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전시회는 5월 31일 18시에 폐막식과 기획 총결산이 진행된다.

입장은 무료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крывают выставку "Сказки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рус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С 6 апреля сахалинцам и гостям острова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выставка из собр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музея "Сказки в произведениях рус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Это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и двух музеев — Русского музея и Сахалинс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Выставочный проект, начавший работу в апреле и приуроченный к 25-летию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стал подарком компании всем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ости музея смогли не только насладиться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ми на выставке, но и окунуться в мир сказки во время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этого проекта: экскурсии, мастер-классы, конкурс рисунков — иллюстраций "Рисуем сказки — несем в музей", театральные и концертные постановки, кинопоказы, виртуальные путешествия по дворцам Русского музея, квесты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31 мая в 18.00 состоится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выставки и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проекта. Вход свободный.

### 사할린 주민들 아니와 구역에서 130 루블에 허가권을 받고 시마 한 종류만 잡을 수 있다

올해 아마추어 시마 스포츠낚시대회가 <주요 어로수역 감독과 수중 생물자원 보존>관리국 사할린 지부의 어로구역인 아니와 구역과 우롭강(교차로에서 1.5km 상류로)과 탐보브카강(강어귀에서 상류로 2km)에서 열렸다. 낚시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아마추어 시마 스포츠낚시 일자는 5월

22일(수), (금), (토), (일)이고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9시까지이다.

낚시는 낚시 도구(낚시대, 낚시 방직 및 플라이 낚시)로 한다.

시마 한 종류만 잡는 허가권 가격은 130루블이다.

허가증은 <주요 어로수역 감독과 수중생물자원 보존>관리국 사할린 지부 아니와 부서(아니와, 라보차야 거리, 9동, 전화 8(424-41) 4-14-25), 그리고 낚시터에서(: 교차로 우롭강의 왼쪽편, 탐보브카강의 오른쪽 강어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증빙 서류 갖고 있는 대조국전쟁 참전자와 장애인, 노동전선 참가자, 그리고 레닌그라드 봉쇄시기의 주민들에게는 허가증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사할린 수산청이 전했다.

### Поймать один экземпляр симы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за 130 рублей

Любительский и спортивный лов симы на рыбопромысловых участках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Главрыбвода в текущем году организован на реках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Урюм (от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переезда — 1,5 км вверх по течению) и Тамбовке (от устья вверх по течению 2 км). Сроки добычи установлены с 22 мая по 10 июня. Дни любительской и спортивной добычи симы: 22 мая (среда), пятница, суббота и воскресенье; время — с 7:00 до 19:00.

Л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удобными орудиями (удочки, спиннинг и нахлыст).

Стоимость одного экземпляра симы — 130 рублей.

Путевку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ном отделе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Главрыбвода (Анива, улица Рабочая, 9, телефон: 8(424-41) 4-14-25), а также на участках лова: левый берег Урюма в районе переезда реки, правый берег Тамбовки в районе устья.

Инвалидам и участника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в годы войны, а также жителям блока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путев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бесплатно при наличии подтвержда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сообщает сахалин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рыболовству.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mun»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mun»,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